

돌봄에 예술을 더하다: 간호대학생의 정서적 돌봄 역량 함양을 위한 돌봄과 치유미술 교과목 운영 경험

Sung Hae Kim

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South Korea

Background

- 현대 보건의료 환경은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전인적 안녕을 도모하는 통합적 돌봄(holistic care)**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해 간호대학생은 **환자의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서적 돌봄 역량(Emotional Caring Competency)**을 내면화 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의 핵심 요소인 공감, 감성지능, 그리고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은 단순한 지식 전수나 이론 중심의 교육 정만으로는 충분히 함양되기 어렵다.
- 기존 간호교육 과정은 해부학, 병태생리학, 임상 실무 등 객관적 지식과 기술 습득에 편중되어 있어,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의 정서를 깊이 있게 마주하는 감성적·예술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술적 매개체를 활용한 체험 중심의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식을 체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Purpose

- 본 연구는 **내면의 정서 정화에 미술치료를 매개로 한 경험 학습 교과목인 '돌봄과 치유미술'을 설계 및 운영하고 학습자의 역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고 교과 운영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Methods

1. Study Design

- 본 연구는 '돌봄과 치유미술' 교과 운영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역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한 연구이다.

2. Participants & Data Collection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간호대학에서 돌봄과 치유미술 교과목을 수강한 **1학년 간호대학생 28명**이다.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자료 수집은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다. 프로그램 시작 전·후 사전, 사후 설문을 진행하였고 참여자 에세이와 성찰일지 등의 질적 자료도 수집하였다.

3. Intervention Program

- 본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총 팀 기반 프로젝트 형식으로 **총 15시간 운영**되었다.
- 학습자 특성 파악 및 팀 편성:**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성격유형 검사와 색채 선호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성향과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4~5명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Healing Photography 팀 프로젝트, 나만의 자화상 그리기 및 에세이 작성, 미술치료 이해와 실천, Caring Art 작품 만들기 및 전시와 발표, 성찰일지 작성** 등 경험, 표현, 행위 중심 매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Figure 1).

4. Data Analysis

- 수집된 자료는 Paired t-test,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였다. 에세이와 성찰일지의 내용은 Graneheim & Lundman (2004)가 제시한 내용분석 방법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의미 단위를 파악하고 원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료와 분석자료를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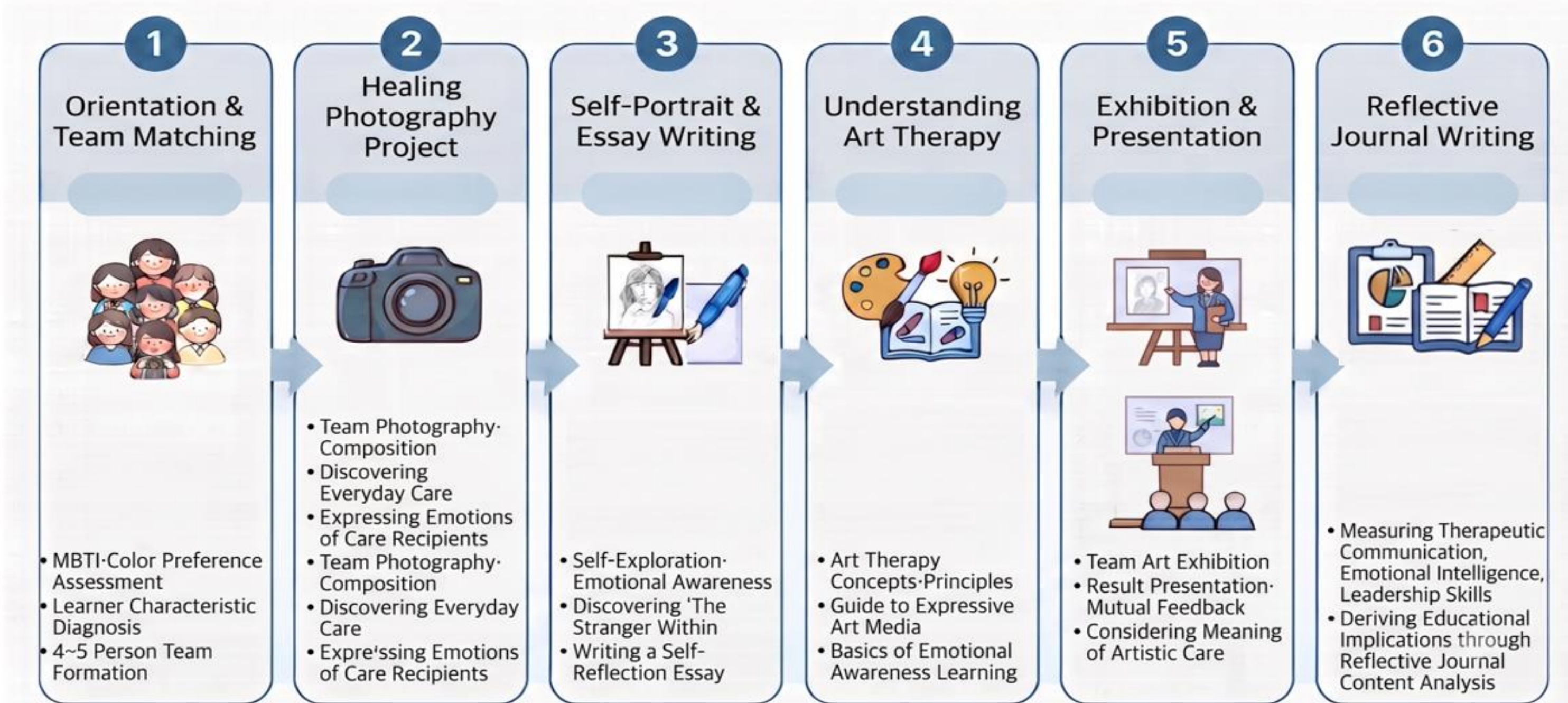


Figure 1. Workflow of Program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 총 28명의 1학년 간호대학생이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은 20.5 ± 0.26 세로 여학생 25명(89.3%), 남학생 3명(10.7%)이었다.

2. Educational Experience

- 프로그램 전후 치료적 의사소통, 감성지능, 리더십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able 1). 성찰일지 내용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자기성찰과 정서적 지각', '간호전문직과 및 공감적 돌봄의 확장', '협업을 통한 관계 역량 및 시야 확장'의 학습경험을 보고하였다. '낯설지만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마음이 울컥했다', '대상자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니 내가 더 성장한 것 같다', '예술이 돌봄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전시된 작품을 보며 간호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작은것에서도 돌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등 정서 인식과 공감적 돌봄을 경험하였다. 또한, 협업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경험하고 다른 팀의 작품을 보며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Table 1. Comparison of Therapeutic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dership Scor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N=28)

Variables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Z	p
Therapeutic Communication Ability	3.21±0.76	3.98±0.42	5.24	< .001
Emotional Intelligence	3.17±0.98	3.71±0.56	4.81	< .001
Leadership	3.12±0.78	3.92±0.54	4.95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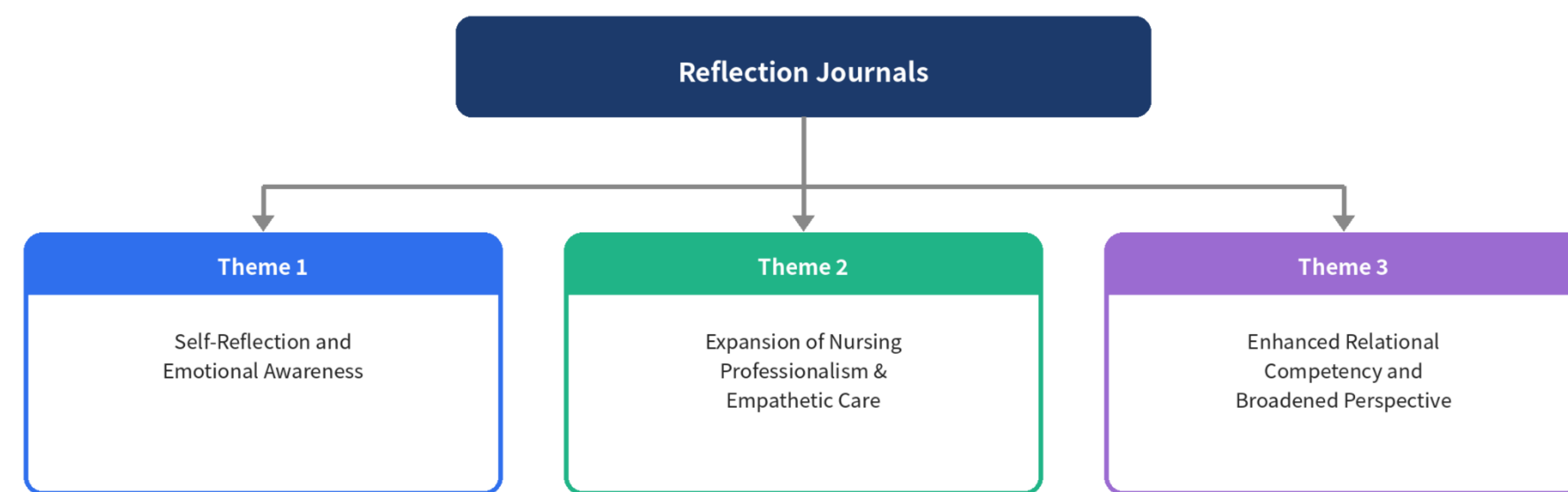


Figure 2. Figure 2. Themes Identified in the Content Analysis of Reflective Journals

Discussion and Conclusion

- 미술치료 기반 경험학습으로 설계된 '돌봄과 치유미술' 교과목은 정서 인식-감정표현-소통-치유 중재-리더십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험 학습 구조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정서적 돌봄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 학습자 특성에 기반한 사전 진단·팀 매칭과 형성평가 중심 과정 평가는 학생 참여와 학업 성취를 함께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가 간호대학생의 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 학습 모델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I · PBL · 시뮬레이션 기반 종양간호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간호대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 및 임상추론역량을 중심으로

Sung Hae Kim

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South Korea

Background

-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와 함께 종양간호 요구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실제 종양 응급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주도적으로 중재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치중되어 있어 복잡한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팀 단위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임상추론역량과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을 함양하는데 한계가 있다.

- 이에 보건의료 교육계에서는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과 안전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교육의 통합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임상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혁신적인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AI, PBL,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Purpose

- 본 연구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시나리오 개발-Problem-Based Learning (PBL)-역할극-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전후 표준화된 역량 측정도구 점수를 비교하여 간호대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역량과 임상추론역량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Methods

1. Study Design

- 본 연구는 ‘종양간호’ 교과 운영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역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한 연구이다.

2. Participants & Data Collection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간호대학에서 종양간호 교과목을 수강한 4학년 간호대학생 28명이다.
- 자료 수집은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프로그램 운영 전과 후에 설문지를 통해 통합교과 필요성, 협력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조절,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추론역량 수준을 측정하였다.

3. Intervention Program

- 종양간호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종양간호 이론강의(4시간), 암종별 환자 교육자료 개발(2시간), ChatGPT를 활용한 증상관리 시나리오 개발 및 mapping (4시간), 말기 암 환자 응급간호중재 역할극 대본 작성 및 시뮬레이션 실습(2시간)으로 연계하여 총 12시간으로 운영하였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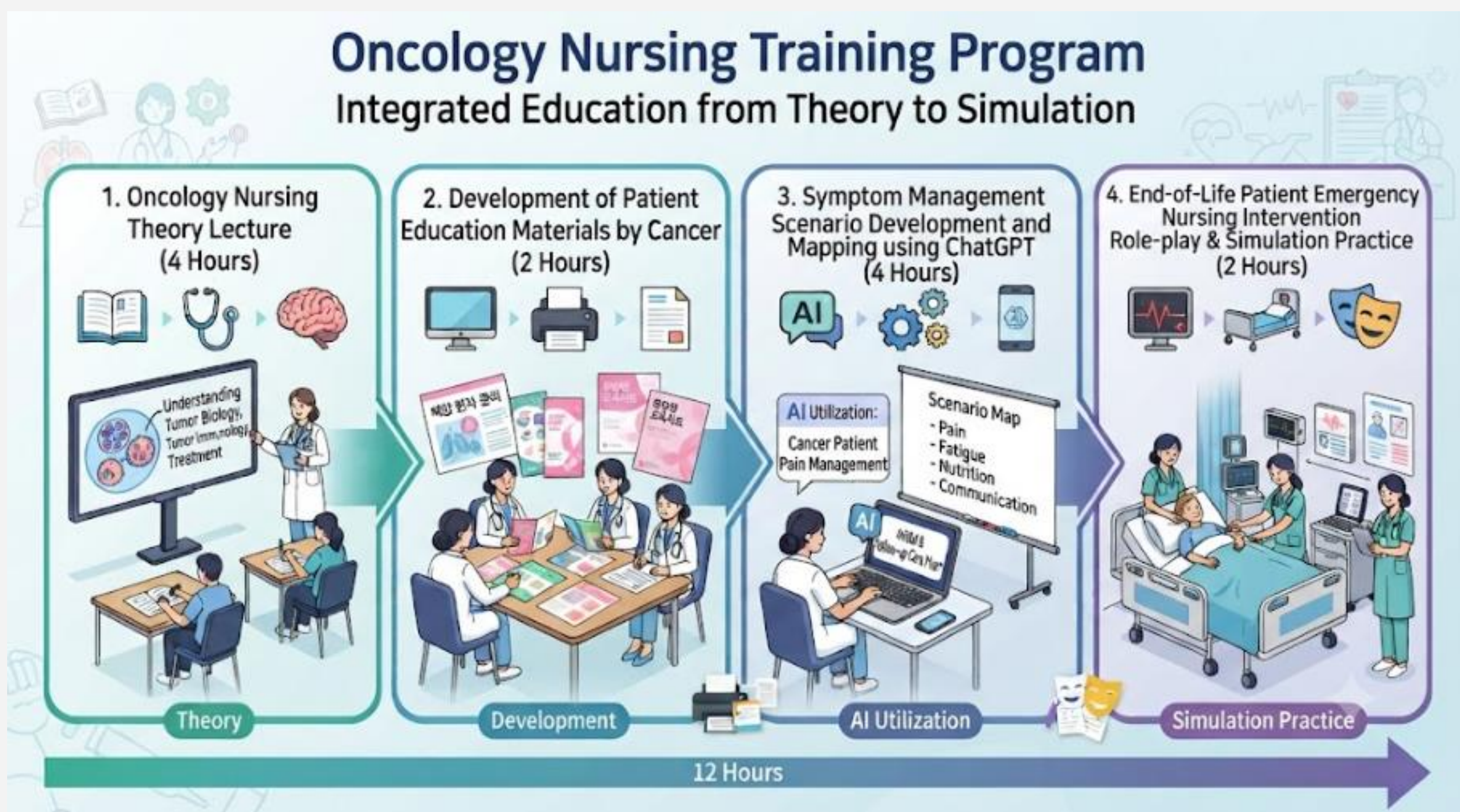


Figure 1. Workflow of Program

4. Data Analysis

- 수집된 자료는 Paired t-test,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였다.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 총 28명의 1학년 간호대학생이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은 20.5 ± 0.26 세로 여학생 25명(89.3%), 남학생 3명(10.7%)이었다.

2. Educational Experience

- 분석결과 프로그램 전·후 협력적 자기효능감, 임상추론역량, 학습동기, 학습 참여행동, 협력적 자기조절 수준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 Comparison of Therapeutic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dership Scor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N=28)

Variables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Z	p
Collaborative Self-Efficacy	4.12±0.40	4.70±0.32	5.32	< .001
Clinical Reasoning Competency	3.84±0.46	4.33±0.41	4.95	< .001
Learning Motivation	4.49±0.43	4.91±0.18	5.61	< .001
Learning Participation Behavior	3.39±0.38	4.34±0.47	3.12	.002
Collaborative Self-Regulation	4.35±0.48	4.57±0.41	2.01	0.46
Academic Self-Efficacy	5.70±0.95	5.80±0.91	0.40	.686

Discussion and Conclusion

- AI 기반 시나리오 개발-PBL-역할극-시뮬레이션으로 연계한 종양간호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협력적 자기효능감·협력적 자기조절과 같은 협력적 문제해결역량과 임상추론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결과가 통합적 교수학습 프로그램 설계 및 협력적 학습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법론 모색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경험 학습을 위한 교육 모델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